

고용노동부 -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기본정보>

- 사업유형/세부유형 : 고용장려금사업/고용유지형
- 소관부처/담당부서 : 고용노동부/고용정책총괄과, 노사협력정책과
- '21년 평가등급 : 우수

1 사업 주요 내용

□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사업목적)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
- (사업내용)
 - (휴업)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총 근로시간의 20/100 초과 단축하고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금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 지원
 - (휴직)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금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기업 1/2) 지원
 - (무급휴업·휴직) 해당 피보험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 무급휴업·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유급 휴업 또는 피보험자의 20/100이상이 휴직을 3개월이상 실시

□ 예산 및 재원: 고보기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년			'21년 예산(B)	증감(B-A)	
	본예산 (A)	추경	결산			(%)
□ 고용유지지원금	35,089	2,682,618	2,288,089 (85.3)	1,372,832	1,337,743	3,8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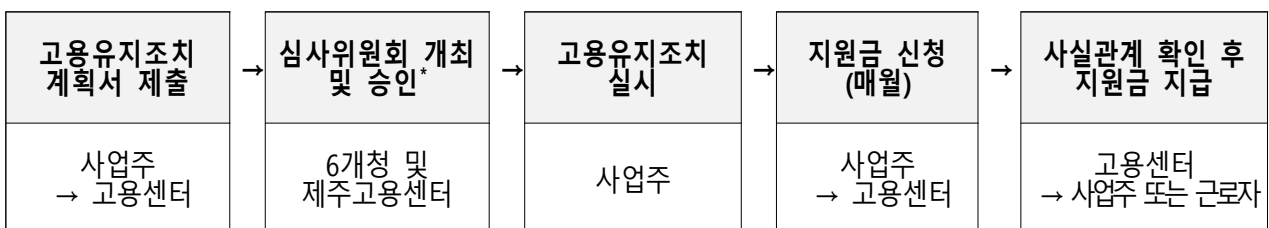
□ 추진근거

- 고용보험법 제21조 등

□ 주요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 조치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

□ 전달체계



□ 전년 대비 주요 개편사항

○ 고용유지지원금

구분	현행	변경
매출액 등 비교시점	전년동기, 전년 월평균, 직전 3개월 대비 매출액 15% 이상 감소	전년동기, 전년 월평균, 직전3개월 대비 매출액 15% 이상 감소 또는 19년 월평균 또는 19년 같은달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 (21년)
근로시간 단축 기준	6~4개월 전 3개월 간 월평균 근로시간 대비 20% 초과 단축	소정근로시간 대비 20% 초과 단축 * 단, 연장근로가 반복·정형화된 경우 직전 3개월 월평균 근로시간 대비 20% 초과단축 허용
사각지대 해소 (파견, 용역 등)	사업주 단위로 고용유지조치 실시	사업장 단위로 고용유지조치 실시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 ① 파견·용역 사업주 등은 사용사업주 또는 원청업체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수 있음 ② 휴업규모율, 신규채용, 감원방지는 사용사업주 또는 원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피보험자에 한해 적용
무급휴직 지원금 사전 요건	3개월 이상 유급휴업(근로시간 20% 초과단축) 실시	① 3개월 이상 유급휴업(근로시간 20% 초과단축) 실시 ② 3개월 이상 피보험자의 20% 이상 유급휴직 실시

- (노사합의고용유지지원금) '20년 제3차 추경 신설 사업으로 '21년은 잔여
사업비 편성(70억원)

2 정량지표 평가 결과

□ 참여자 현황

- (참여 근로자 수) '20년 기준 고용유지지원금을 최초 지원받은 근로자
수는 686,864명으로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전체 근로자 중 26.6%를
차지함.

- (성별) 남성 근로자의 지원 비중이 61.2%로 여성 근로자의 지원 비중 (38.8%)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 중년(52.1%)의 지원 비중이 가장 높고, 청년(32.0%), 장년 (13.6%), 고령(2.3%)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1〉 고용유지지원금 참여 근로자 현황

(단위: 명, %)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청년 (15~34세)	중년 (35~54세)	장년 (55~64세)	고령 (65세이상)
고용장려금 전체	2,583,913 (100.0)	1,176,447 (45.5)	1,407,404 (54.5)	1,253,831 (48.5)	957,824 (37.1)	296,284 (11.5)	75,650 (2.9)
고용유지지원금	686,864 (100.0)	4520,300 (61.2)	266,564 (38.8)	219,670 (32.0)	357,762 (52.1)	93,581 (13.6)	15,851 (2.3)

주1: 성별, 연령별로 분류불능이 존재하여 각 비율의 합은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참여 사업장 현황

- (참여 사업장 수) '20년 기준 고용유지지원금을 최초 지원받은 사업장 수는 69,278개소로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전체 사업장 중 20.6%를 차지함.
- (규모별) 300인 미만 사업장(99.6%)이 대다수이며, 300인 이상 사업장의 참여도(0.4%)는 매우 낮은 편임.
- (산업별) 서비스업(68.9%)의 참여 비중이 높고, 제조업(28.5%) 및 건설업 (2.4%)의 참여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2〉 고용유지지원금 참여 사업장 현황

(단위: 개소, %)

유형	전체	규모별		산업별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고용장려금 전체	336,601 (100.0)	333,357 (99.0)	2,258 (0.7)	64,040 (19.0)	8,350 (2.5)	262,195 (77.9)
고용유지지원금	69,278 (100.0)	69,001 (99.6)	267 (0.4)	19,754 (28.5)	1,663 (2.4)	47,764 (68.9)

주1: 규모별, 산업별로 분류불능이 존재하므로 각 비율의 합은 100%미만일 수 있음

□ 정량지표별 결과

〈표 3〉 고용유지지원금 정량지표 결과

(단위: %)

	고용유지율 (6개월)	고용증감률1)	기업생존률2)
고용장려금 전체	81.2	25.3	84.8
고용유지지원금	84.9	-26.0	87.0

주1: 고용증감율은 고용창출형과 고용유지형에서만 산출하며, 고용유지형은 종료 후 고용증감율로 산출

2: 기업생존률은 고용유지형과 고용안정형에서만 산출

3: 모성보호형은 고용유지율만 산출

□ 만족도 조사 결과

○ 항목별 만족도

〈표 4〉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장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점)

	전체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절대적 만족도	지원 대상	지원 기간	지원 수준	신청 절차	지도 및 관리	주관적 만족도	상대적 만족도
고용장려금 전체	4.20	4.19	4.19	4.36	4.21	4.17	4.05	4.16	4.28	4.16
고용유지 전체	4.09	4.05	4.05	4.22	4.18	3.98	3.81	4.05	4.20	4.07
고용유지지원금	4.09	4.05	4.05	4.22	4.18	3.98	3.81	4.05	4.20	4.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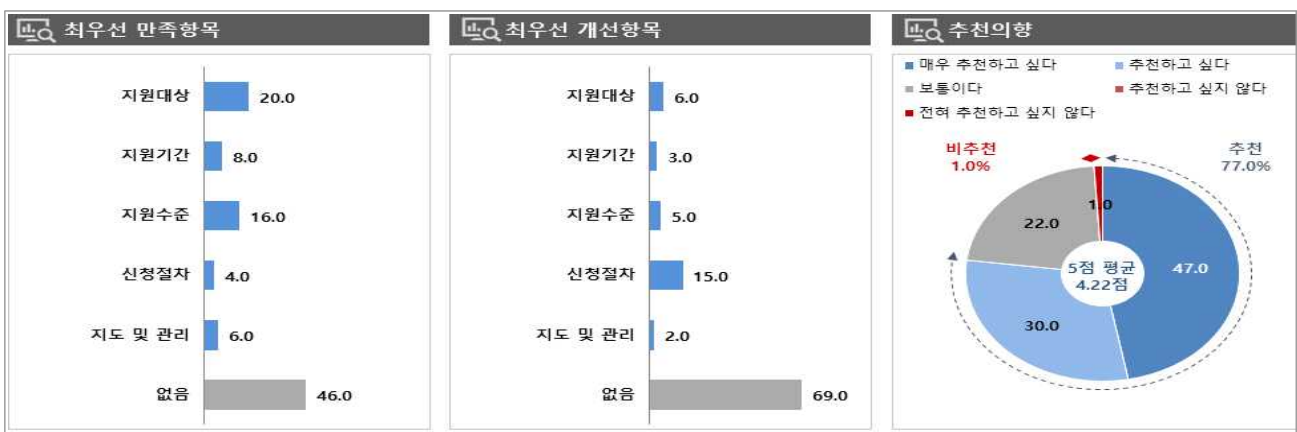
주: 1) 만족도 조사 결과는 1점 매우 불만족부터 5점 매우 만족까지로 구성된 5점 척도 문항의 평균값임

2) 전반적 만족도: 사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절대적 만족도: 5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

주관적 만족도: 사업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상대적 만족도: 사업에 대한 기대 대비 만족도

○ 만족/개선 항목 및 추천 의향

[그림 1] 고용유지지원금 만족/개선 항목 및 추천 의향



주: 1) 만족항목

- 전체: 지원대상(28.8) > 지도수준(16.9) > 지도/관리(10.3) > 지원기간(9.8) > 신청절차(9.1) ; 없음(25.1)
- 유지: 지원대상(20.0) > 지원수준(16.0) > 지원기간(8.0) > 지도/관리(6.0) > 신청절차(4.0) ; 없음(46.0)

2) 개선항목

- 전체: 신청절차(8.6) > 지원기간(5.9) > 지원수준(4.8) > 지원대상(3.7) > 지도/관리(3.1) ; 없음(74.0)
- 유지: 신청절차(15.0) > 지원대상(6.0) > 지원수준(5.0) > 지원기간(3.0) > 지도/관리(2.0) ; 없음(69.0)

3) 추천 의향

- 전체: 4.29점, 추천(81.9=31.4+50.5) > 보통(15.4) > 비추천(2.7=2.1+0.6)
- 유지: 4.22점, 추천(77.0=30.0+47.0) > 보통(22.0) > 비추천(1.0=0.0+1.0)

3 정성지표 평가 결과

□ 정성지표별 평가결과

○ 사업의 중요성

- 이 사업은 매출액이나 생산액 감소 등을 경험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해서 해당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휴업이나 휴직 등을 통한 고용유지조치를 취하게 되면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임
- 이 사업은 경기변동 등 외부의 상황적 요인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경제위기를 경험할 때를 대비한 사업이며, 위기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임.
 - * 이 사업은 2020년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 부담 경감과 지속적인 경쟁력 유지, 그리고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었음
 - * 향후 경제 상황이 호전되면 이 사업의 중요성이 줄어들겠지만, 경기변동의 주기가 빨라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이 사업은 경제위기에 대비해서 항상 준비해두어야 하는 사업임
- 이 사업의 예산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일자리사업 성과

- 2020년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본 예산과 추경 예산을 포함해서 26,746억 원으로 증액하였으며(전년도 대비 74배 증액), 전체 지원 규모가 69,278개 사업장에 종사하는 68.7만 명에 이르고 있음
- 2020년의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심하게 받은 여행업과 항공업 등의 업종, 경기변동에 민감한 30인 미만의 영세 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실적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 여행업과 항공업 등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우선 지원하고, 지원수준도 기존 지원단가의 2/3에서 9/10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 * 이 사업을 통한 전체 지원사업장 69,278개소 중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69,001개소로서 전체의 99.6%를 차지하고 있음

- 2020년의 코로나19 사태에도 OECD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고용성과가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난 것에는 이 사업이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운영의 적정성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제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한 점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됨
 - * 코로나19에 대응한 대폭적인 예산 증대, 코로나19에 의한 피해가 큰 여행업과 항공업 등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코로나19 관련 집합 제한·금지 업종에 대한 우대 지원, 지원기간 60일 연장 등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적절히 대응하고 있음
- 코로나19 상황에서 협의체,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수행기관, 산업현장 등과 원활한 소통구조를 만들었고, 그것을 통해서 산업현장과 전달체계 등에서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포착하고 있다고 보임

○ 제도개선 노력

-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음
 - * 코로나 19 상황에 대응해서 지원요건 완화, 지원수준 상향 조정 등의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음